2025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현장 전체 참석에 도전했던 특새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야근이 잦고,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출근했을 때 피곤함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갈까 걱정이 되어 현장 전체 참석을 선뜻 도전하지 못했었지만, 작년 말부터 캠퍼스 엘더로 섬기게 되며 구해야 할 많은 기도제목들을 보여주셨기에 현장 전체 참석을 결심했습니다. 목장과 캠퍼스, 직장, 가정, 관계 등 많은 기도제목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특새를 맞이하였고, 감사하게도 매일 새벽 시간을 맞춰 일어나게 해주셔서 6일 간 빠짐없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된 6일 간의 특새 말씀을 통해 제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사소한 일상과 기도제목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업무에만 매몰되어 고민이었던 직장에서는, 행복의 이타적 소유자로서 직장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목양적 고민을 안고 있었던 별헤는 목장에 대하여는, 밤하늘의 보석과 깉이 빛나는 별처럼, 열방의 복이 되는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엘더 사역을 시작하게 된 10캠퍼스에 대하여는,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득 맺고 무엇이든 구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아온 모든 기도제목에 말씀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일 간 매일 캠퍼스 공동체와 함께 예배로 새벽 제단을 쌓은 후 아침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상쾌한 발걸음으로 출근하며, 몸은 피곤했지만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올해 끝까지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